

## 제2절 세계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권역별 규모 및 전망

2010년 권역별 세계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는 북미권 213억 6,900만 달러, 유럽권 394억 4,500만 달러, 아시아권 263억 9,700만 달러, 오세아니아권 16억 6,900만 달러, 중남미 28억 2,300만 달러, 아프리카권 19억 1,700만 달러로 예상되며, 세계 시장 전체는 전년 대비 7.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콘텐츠 산업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볼 때 유럽>아시아>미국 순으로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중은 향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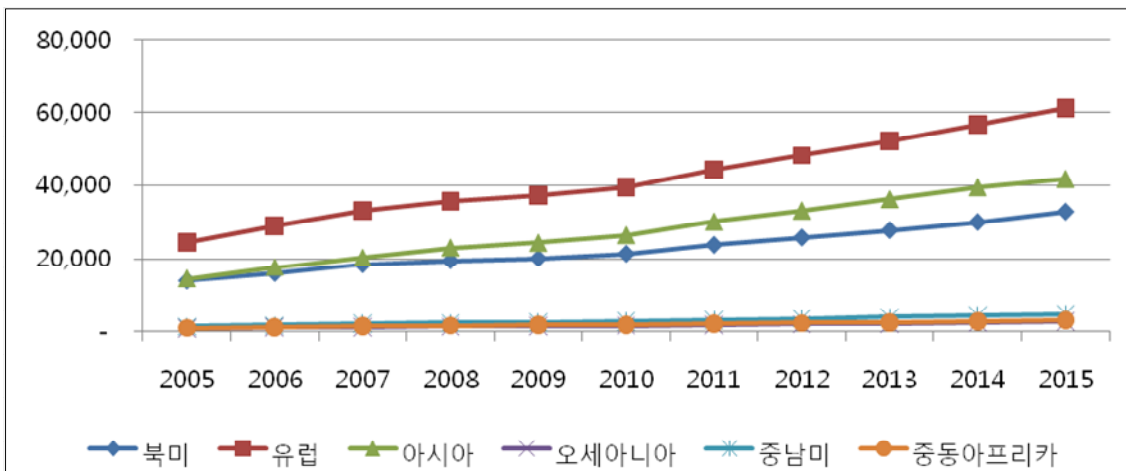
<표 II-2> 권역별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2005~2015)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전체	56,116	66,721	76,469	83,711	87,450	93,619	105,418	115,197	124,955	135,736	146,517	9.4%
북미권	13,826	15,891	18,311	19,413	20,081	21,369	23,798	25,804	27,801	30,007	32,840	9.0%
유럽권	24,438	29,007	32,968	35,689	37,122	39,445	44,260	48,222	52,144	56,523	61,080	9.1%
아시아권	14,417	17,590	20,212	22,988	24,315	26,397	30,065	33,104	36,149	39,454	41,726	9.6%
오세아니아권	982	1,187	1,330	1,474	1,553	1,669	1,894	2,090	2,295	2,532	2,830	11.1%
중남미권	1,430	1,788	2,125	2,422	2,585	2,823	3,230	3,593	3,959	4,363	4,871	11.5%
중동아프리카권	1,024	1,257	1,522	1,725	1,794	1,917	2,172	2,384	2,607	2,856	3,169	10.6%
전년대비 성장률		18.9%	14.6%	9.5%	4.5%	7.1%	12.6%	9.3%	8.5%	8.6%	7.9%	9.4%

성장을 측면에서는 중남미권(9.1%), 아시아권(8.6%), 오세아니아권(7.5%) 순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 권역별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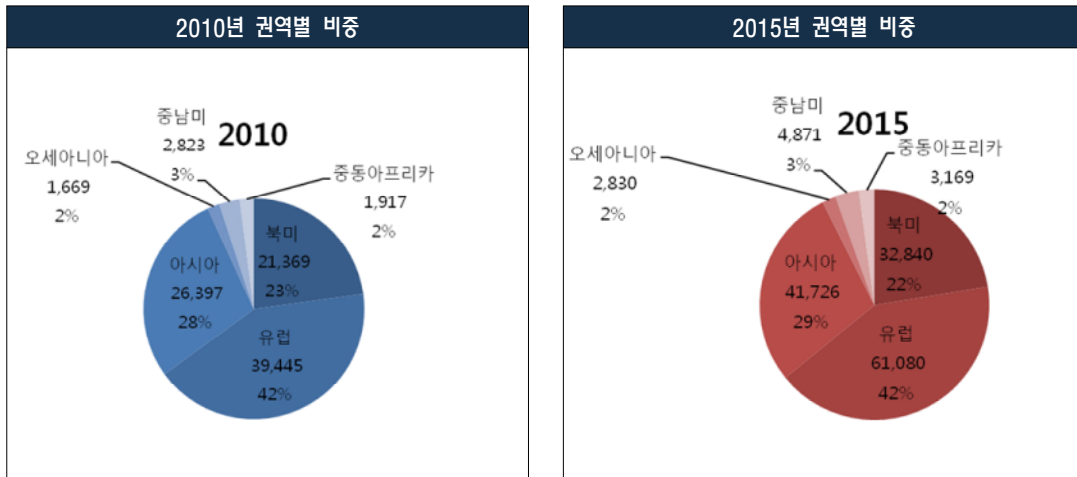


권역별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비중은 유럽권, 아시아, 북미권을 중심으로 일정비율을 유

지하는 가운데, 북미와 유럽 권역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아시아 오세아니아권과 중남미 권 비중의 성장이 전망된다.

2010년 세계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권역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7>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아시아, 북미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림 II-5] 2010년과 2015년 권역별 세계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비중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GIA, 2010, iResearch, 2010

## 1. 이러닝 시장의 규모 및 전망

이러닝 시장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2010년 514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6.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닝 시장의 성장률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극히 작거나 통계치 부재로 인하여 과거 추정이 불가능하였던 시장이 다수 추가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향후 성장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11.4% 성장하여 2015년에는 약 88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모바일 시장의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0.7% 성장하여 2015년 약 9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II-3> 이러닝 시장 권역별 규모 및 전망(2005~2015)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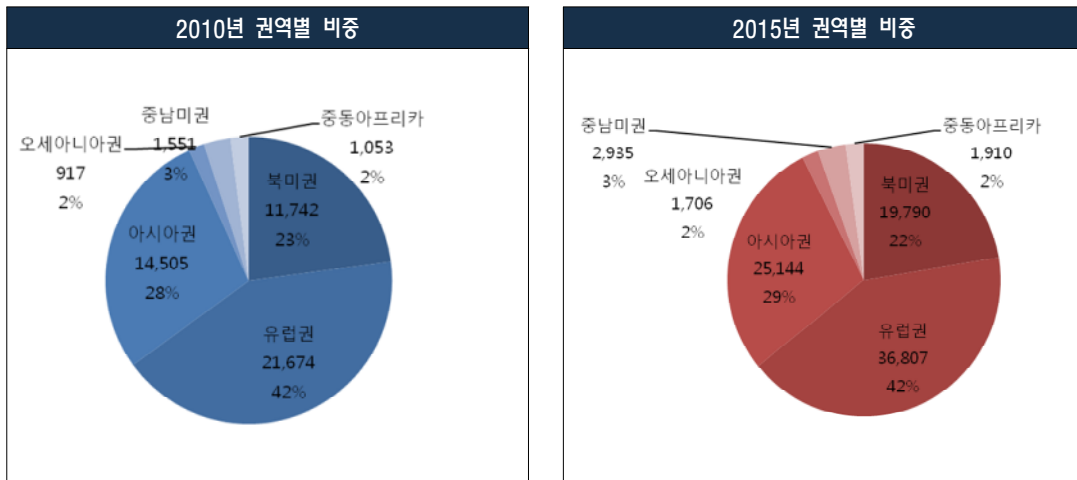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전체	16,043	23,028	29,501	36,702	44,072	51,442	58,812	66,182	73,552	80,922	88,292	11.4%
북미권	3,953	5,485	7,064	8,511	10,120	11,742	13,276	14,823	16,364	17,889	19,790	11.0%
유럽권	6,987	10,011	12,719	15,647	18,708	21,674	24,692	27,705	30,693	33,697	36,807	11.2%
아시아권	4,122	6,071	7,798	10,079	12,254	14,505	16,773	19,019	21,279	23,522	25,144	11.6%
오세아니아권	281	410	513	646	783	917	1,057	1,201	1,351	1,510	1,706	13.2%
중남미권	409	617	820	1,062	1,303	1,551	1,802	2,064	2,331	2,601	2,935	13.6%
중동아프리카권	293	434	587	756	904	1,053	1,212	1,370	1,535	1,703	1,910	12.6%
전년대비		43.5%	28.1%	24.4%	20.1%	16.7%	14.3%	12.5%	11.1%	10.0%	9.1%	

성장률													
모바일시장	802	1,151	1,475	1,835	2,204	3,601	4,787	5,705	5,884	7,283	9,227	20.7%	

자료원: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2010년 현재 이러닝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권으로 약 42.1%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41.7%로 시장 점유율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권의 경우에도 약 22.8%에서 약 22.4%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II-6] 2010년과 2015년 권역별 세계 이러닝 시장 비중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 2. 정보콘텐츠 시장의 규모 및 전망

정보콘텐츠 시장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전체 시장 규모는 2010년 332억 4,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에는 다시 회복하여 성장률 1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향후 이 성장률은 다시 감소하여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보서비스 시장은 예전처럼 급격한 성장을 회복하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교육 및 훈련, STM 등 일부 분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sup>. 향후 5년간 연평균 5.7% 성장하여 2015년에는 약 43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모바일 시장의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4.5% 성장하여 2015년 약 4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II-4> 정보콘텐츠 시장 권역별 규모 및 전망(2005~2015)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전체	36,417	39,107	41,340	40,279	35,535	33,246	36,591	37,896	39,201	41,526	43,851	5.7%
북미권	8,972	9,314	9,899	9,341	8,160	7,589	8,260	8,488	8,722	9,180	9,829	5.3%
유럽권	15,859	17,002	17,823	17,173	15,085	14,008	15,363	15,864	16,359	17,292	18,281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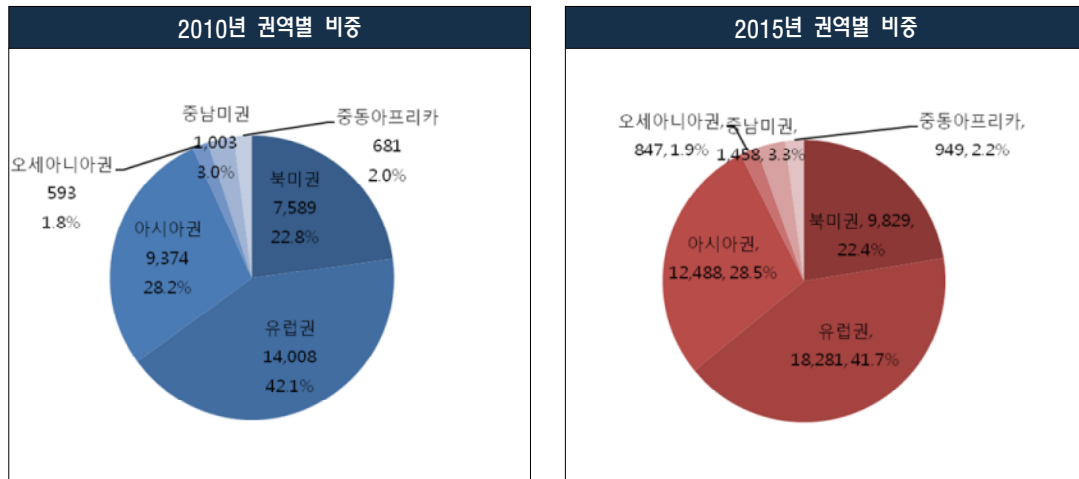
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

아시아권	9,356	10,310	10,927	11,061	9,880	<b>9,374</b>	10,436	10,890	11,341	12,070	12,488	5.9%
오세아니아권	637	696	719	709	631	<b>593</b>	657	687	720	775	847	7.4%
중남미권	928	1,048	1,149	1,165	1,050	<b>1,003</b>	1,121	1,182	1,242	1,335	1,458	7.8%
중동아프리카권	664	737	823	830	729	<b>681</b>	754	784	818	874	949	6.9%
전년대비 성장률		7.4%	5.7%	-2.6%	-11.8%	<b>-6.4%</b>	10.1%	3.6%	3.4%	5.9%	5.6%	
모바일시장	1,821	1,955	2,067	2,014	1,777	<b>2,327</b>	2,979	3,267	3,136	3,737	4,582	14.5%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2010년 현재 정보콘텐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권으로 유럽권 정보콘텐츠 시장은 현재 약 140억 달러에 달하며, 2015년에는 약 18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는 아시아권으로 2010년 현재 약 93억 7,400만 달러, 2015년에는 약 12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와 유럽의 비중은 향후 다소 줄어들고, 대신 아시아권, 중남미, 오세아니아권역의 시장 비중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7] 2010년과 2015년 권역별 정보콘텐츠 시장 비중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 1) 금융정보: 금융 뉴스 및 리서치 정보, 중개 정보 서비스

금융 뉴스 및 리서치 정보 온라인 서비스 부문의 대표적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 II-5> 주요 온라인 중개 정보 서비스 기업

회사명	서비스
Dow Jones	Dow Jones Newswires
Value Line	Value Line Investor Newsletters
Interactive Data Corp.	eSignal
PCQuote.com	PCQuote.com
FinancialContent Inc.	FinancialContent.com
Vickers Stock Research Group	Vickers Bond Online, Vickers Online
Morningstar	10K Wizard

Comtex	Comtex News Network
Pearson	FT.com, The Financial Times
NetContent Inc.	OneFN
Track Data	myTrack
Edgar Online	Edgar Online Pro
TheStreet.com	TheStreet.com
Dow Jones	MarketWatch.com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2008~2009년 주요 기업 실적을 살펴보면, 10위권 안의 대부분의 기업이 연간 매출 감소를 경험하여 10개 업체 전체 성장률이 -5.1%이 되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FT.com(10.6%), WSJ.com(6.8%), MarketWatch(4.5%) 등은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주요 온라인 뉴스 및 리서치 정보 서비스 기업 실적 현황 (2008~2009E)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회사명	2008	2009	성장률
1	Dow Jones Newswires/FIS	298.0	270.0	-9.4%
2	WSJ.com	150.5	160.8	6.8%
3	eSignal	88.9	83.4	-6.2%
4	Thomson Reuters	77.0	66.0	-14.3%
5	TheStreet.com	70.8	58.3	-17.7%
6	MarketWatch	67.0	70.0	4.5%
7	FT.com	52.9	58.5	10.6%
8	Morningstar.com	45.7	43.5	-4.8%
9	EDGAR Online	19.5	16.6	-14.9%
10	Value Line electronic	19.2	17.2	-10.4%
	합계	889.5	844.3	-5.1%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구독자 수 기준으로 상위 업체를 살펴보면, Dow Jones의 WSJ.com이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 월등한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Morningstar.com, FT.com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2009년 들어 구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WSJ.com(5.3%)과 eSignal(3.0%)은 지속적으로 구독자수를 늘리고 있다.

<표 II-7> 주요 온라인 뉴스 및 리서치 정보 서비스 구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모회사	서비스	2008 구독자수	2009 구독자수(E)	증감률
1	Dow Jones	WSJ.com	1,035,085	1,090,000	5.3%
2	Morningstar.com	Premium subscribers	177,518	155,200	-12.6%
3	FT.com	FT.com	109,609	126,750	15.6%

4	TheStreet.com	Subscription products	77,600	75,000	-3.4%
5	Interactive Data Corp.	eSignal	54,870	56,492	3.0%
6	Money.net	PCQuote.com, et al	32,000	30,000	-6.3%
7	Morningstar Document Research	Formerly 10-K Wizard	29,500	27,000	-8.5%
8	MarketWatch.com	myTrack	14,900	14,500	-2.7%
9	Track Data	Professional products	13,500	13,400	-0.7%
10	EDGAR Online	EDGAR Pro	8,700	7,200	-17.2%
합계			1,553,282	1,595,542	2.7%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중개 서비스 부문의 대표적인 업체는 아래와 같다. 이 시장의 경쟁자 그룹은 금융정보 전 반을 제공하는 Bloomberg나 Thomson Reuters를 비롯하여, 주식, 상품, 외환, 국제유가 증권 등을 다루는 업체들을 포함한다.

<표 II-8> 주요 온라인 중개 정보 서비스 기업

모회사	서비스	대상 시장
Bloomberg	Bloomberg Professional Service	All financial markets
Thomson Reuters	Reuters 3000 Xtra	All financial markets
Thomson Reuters	Thomson One	All financial markets
Interactive Data Corp.	Pricing and Reference Data	Equities
Interactive Data Corp.	Fixed Income Analytics	Bonds
Interactive Data Corp.	Real-Time Services	Commodities, foreign exchange
ICAP	EBS Spot, EBS Trader, EBS Market Data, EBS FXNET	Foreign exchange
ICAP	GovPX	Bonds
Track Data	ProTrack, Track ECN	Equities
MSCI Barra	BarraOne	Equities
SIX Group	SIX Telekurs Ltd.	International securities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2008~2009년 주요 기업 실적을 살펴보면, Thomson Reuters, SIX Telekurs, Morningstar, Track Data Professional 등 4개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ICAP(15.0%) 과 FactSet Research(8.1%)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표 II-9> 주요 온라인 중개 정보 서비스 기업 실적 현황 (2008~2009)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회사명	2008	2009(E)	성장률
1	Thomson Reuters	5,407.5	5,115.5	-5.4%
2	Bloomberg	5,293.7	5,355.0	1.2%
3	Interactive Data Corp.	661.6	673.8	1.8%
4	FactSet Research	575.5	622.0	8.1%

5	MSCI Barra	431.0	442.9	2.8%
6	SIX Telekurs	388.0	368.6	-5.0%
7	Standard & Poor's	287.8	300.0	4.2%
8	ICAP	96.2	110.6	15.0%
9	Morningstar	90.4	88.6	-2.0%
10	Track Data Professional	14.5	10.7	-26.2%
합계		13,246.2	13,087.7	-1.2%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구독자 수 기준으로 상위 업체를 살펴보면, Reuters(Reuters Xtra, Reuters Trader, Knowledge & Wealth Manager)와 Dow Jones가 가장 많은 수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Bloomberg, Thomson Financial, Interactive Data Corp.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구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주요 중개 및 금융 서비스 온라인 구독자 수 증감 추이

순위	모회사	서비스	2008 구독자수	2009 구독자수(E)	증감률
1	Reuters	Reuters Xtra, Reuters Trader, Knowledge & Wealth Manager	340,000	333,000	-2.1%
1	Dow Jones	Dow Jones Newswires	340,000	331,000	-2.6%
3	Bloomberg	Bloomberg Professional	268,800	257,330	-4.3%
4	Thomson Financial	Thomson ONE terminals	158,000	155,000	-1.9%
5	Interactive Data Corp.	Interactive Data Pricing and Reference	135,000	133,000	-1.5%
6	Standard & Poor's	S&P MarketScope, et al.	115,000	109,000	-5.2%
7	Morningstar	Licensed Data, Morningstar Direct	55,385	56,000	1.1%
8	FactSet Research	All products	40,100	37,300	-7.0%
9	Track Data Professional	Professional products	20,000	17,000	-15.0%
10	EDGAR Online	All products	11,700	9,735	-16.8%
합계			1,486,985	1,438,365	-3.3%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Bloomberg Professional은 스팟 데이터, 시장가격, 자료 검색, 워크플로우 유틸리티 등을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분석, 트레이딩, 그밖에 매니지먼트 툴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Bloomberg는 금융 정보 부문에서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14개의 기업 거래 실적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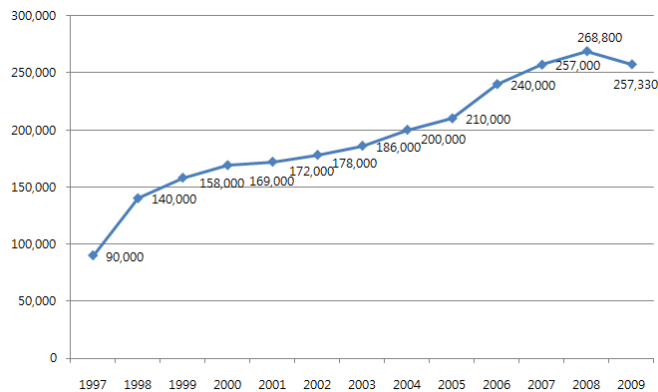
Dow Jones & Co.는 News Corp.의 자회사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 및 정보 서비스 분야의 선도 기업이며, SmartMoney의 50%, STOXX Ltd.의 33%를 소유하고 있다. 3개의

비즈니스 세그먼트는 다음과 같다.

- consumer media: The Wall Street Journal, Barron's, the MarketWatch Web site, the monthl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enterprise media: Dow Jones Newswires, Factiva, Dow Jones Client Solutions, Dow Jones Indexes, Dow Jones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 local media: Ottaway Newspapers

블룸버그<sup>2)</sup>의 경우, 1997년부터 2009년까지 구독자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해 오다가, 2009년 처음으로 수가 감소되었다.

[그림 II-8] Bloomberg 구독자 수 증감 추이 (1997~2009)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2009년 말 금융 정보 서비스 기업들의 M&A 중 주목할 만한 점은, Morningstar가 LIM을, Bloomberg가 New Energy Finance를 각각 인수하여, 에너지 분야의 라인업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New Energy Finance는 세계 1위의 클린에너지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Dow Jones는 Dow Jones OFS를 IDC에 매도하였다. 2009년 말 발표된 주요 글로벌 정보 서비스 기업 M&A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11> 주요 금융 정보 서비스 기업의 M&A

회사명	인수 대상	공표 연월	내용
Morningstar	Logical Information Machines Inc.	2009.12	에너지, 금융, 농업 부문 데이터 및 분석기법에 대해 5,150만 달러 지불 LIM의 연간 수익: 약 2,000만 달러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09.12	에너지 부문 데이터, 뉴스, 분석기법을 보유한 영국 기업 New Energy Finance를 인수하여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설치
Interactive Data Corp.	Dow Jones Online Financial Solutions	2009.12	뉴스, 시장 데이터, 리서치, 고급 도표 및 포트폴리오, 웹기반 솔루션, 얼터링

2) Bloomberg Professional의 구독료는 월 1,800 달러이며, 여러 건을 구독하는 경우 300달러의 할인이 적용된다.



Interactive Data Corp.	7ticks LLC	2009.12	시카고 소재 e-트레이딩 서비스 기업
Thomson Reuters	Breakingviews	2009.12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런던 소재 금융 정보 전문 인터넷언론매체 2000년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출신이 설립하였으며, 데일리텔레그래프, 르몽드 등에 콘텐츠 공급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KPMG (2010)

Simba Information은 금융 정보 서비스 부문의 2010년 주요 트렌드로서, 무료 정보 서비스들에 의한 가격 압박,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수요, 신규 콘텐츠 확보를 위한 Thomson Reuter 및 Bloomberg의 인수 전략, 프로슈머 투자자 증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한 경쟁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인수 합병은 기존 시장 외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당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와 정보력 확충에도 활용되는 전략이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에 의해 Thomson Reuters나 Bloomberg 등과 같은 기업들의 데스크톱 기반 서비스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네트워크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기존의 방식보다 증권 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에 더욱 적합하다는 평가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 2) 일반 뉴스 및 리서치 정보 서비스

일반 뉴스 및 리서치 정보 서비스 부문의 대표적인 업체는 아래와 같다. 이 시장의 선도 기업은 Reed Elsevier<sup>3)</sup> 계열의 LexisNexis, News Corp.의 Factiva, D&B의 Hoover's 등 대형 미디어 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이며, 뉴스와 리서치 모두를 다루는 기업과 어느 한쪽을 다루는 기업, 비즈니스 정보만을 다루는 기업과 그 외에 금융 정보, 법률 정보 등을 함께 다루는 기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II-12> 주요 온라인 뉴스 및 리서치 서비스 기업

모회사	서비스	구분	대상 시장
HighBeam LLC (Cengage Learning)	HighBeam Research	News/Research	Business/Financial
Factiva (News Corp.)	Factiva.com	News/Research	Business
LexisNexis (Reed Elsevier)	Nexis.com	News/Research	Business/Legal
Dialog (ProQuest)	DataStar	News/Research	Business
OneSource (infoGROUP)	Global Business Browser	Research	Business
Alacra	Alacra Pulse, Alacra Book	Research	Business/Financial
Hoover's Inc. (D&B)	Hoover's Online	Research	Business

3) Reed Elsevier는 세계 최대의 전문 정보 퍼블리셔다. Reed Elsevier는 Reed Elsevier PLC와 Reed Elsevier NV, 두 개의 모기업을 갖고 있다. 비즈니스 세그먼트는 크게 과학 및 의학 출판 부문(Elsevier), 법률 출판 부문(LexisNexis), 비즈니스 부문(Reed Business Information)으로 나뉘어 있다.

Northern Light Group, LLC	Northern Light	Research	Business
OCLC	FirstSearch	Research	Library
ProQuest LLC (Cambridge Information Group)	ulrichsweb.com	Research	Library
YellowBrix	YellowBrix	Research	Business
NewsEdge (Acquire Media)	NewsEdge	News	Business
Comtex News Network	Newsroom, CustomWires	News	Business/Financial
EIN News	EIN News	News	Business
Cribis (CRIF)	SkyMinder	Research	Business/Credit
Zoom Information Inc.	ZoomInfo	Research	Business
Meltwater Group	Meltwater News	News	Business
Google Inc.	Google News	News	Business
Yahoo!	Yahoo! Finance	News	Business
NewsGator	NewsGator	News	Business
Infospace	Infospace	Research	Business
MarketResearch.com	Profound	Research	Business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매출 1위 업체인 LexisNexis의 실적이 2.0%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 감소를 겪거나 정체 상태에 있는 중에 Alacra가 14.7%의 독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들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시장 전체의 67.9%에 해당한다.

<표 II-13> 주요 온라인 뉴스 및 리서치 서비스 기업 실적 현황 (2008~2009)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회사명	2008	2009(E)	성장률
1	LexisNexis	578.0	566.4	-2.0%
2	Factiva	305.3	300.0	-1.7%
3	Hoover's Online	124.9	118.7	-5.0%
4	OCLC	106.3	106.4	0.1%
5	Dialog	84.0	80.0	-4.8%
6	ISI Emerging Markets	57.0	57.0	0.0%
7	OneSource	55.0	50.0	-9.1%
8	NewsEdge	24.0	22.5	-6.3%
9	Alacra	17.0	19.5	14.7%
10	Profound	13.0	10.0	-23.1%
	합계	1,371.6	1,336.9	-2.5%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구독자 수 기준으로 상위 업체를 살펴보면, Factiva, LexisNexis, Dialog가 각각 100만 명 이상의 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Hoover's, OCLC, ISI Emerging Markets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구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lacra의 12.5% 성장은 독보적이다.

<표 II-14> 주요 온라인 뉴스 및 리서치 서비스 온라인 구독자 수 증감 추이

순위	회사명	구독 유형	2008 구독자수	2009 구독자수(E)	증감률
1	Factiva	개인	1,740,000	1,715,000	-1.4%
2	LexisNexis	개인	1,425,000	1,395,000	-2.1%
3	Dialog	개인	1,200,000	1,190,000	-0.8%
4	Hoover's Online	개인	175,000	165,000	-5.7%
5	OCLC	도서관	69,840	72,035	3.1%
6	ISI Emerging Markets	개인	45,000	44,000	-2.2%
7	OneSource	개인	45,000	43,000	-4.4%
8	Comtex News Network	개인	19,500	18,500	-5.1%
9	Alacra	개인	8,000	9,000	12.5%
합계			4,727,340	4,651,535	-1.6%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경기 위축으로 인한 해당 기업들의 감축 경영과 이로 인한 포털기업들과의 협상교섭력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맺으며 SEM(Search Engine Marketing),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리타겟팅(Retargeting)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sup>4)</sup>. 또한 합병과 인수를 통해 다양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을 펴기도 한다. 일반 뉴스 및 리서치 서비스 업계에서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와이어리스였다. Hoover's가 2009년 Hoover's Mobile과 Hoover's MobileSP를 CES에서 런칭한 데 이어, Yahoo! Mobile은 2009년 초 영문 버전 외에 11월에 스페인어 버전도 선보였다.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정보를 위해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웹 기반의 원천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강화되고 있다.

### 3) 법률, 세무, 공공기록 정보 서비스

법률, 세무, 공공기록 정보 서비스 부문의 대표적인 업체들은 대부분 Reed Elsevier(LexisNexis), Thomson Reuters, Wolters Kluwer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에 Bureau of National Affairs, Incisive Media, IndexMaster, State Net 등이 있다.

<표 II-15> 주요 법률, 세무, 공공기록 정보 서비스 기업

모회사	서비스	사업 내용
Reed Elsevier	LexisNexis	법률, 뉴스, 공공기록, 세무, 규제간행물 등을 온라인 인쇄물, CD-ROM으로 제공
	Quicklaw	캐나다 소재. 온라인 리서치 서비스
Thomson Reuters	Carswell	캐나다 소재. 법률, 세무, 금융, 회계, HR 등의 특화된 정보 및

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

		리서치 솔루션 제공
	Checkpoint	세무 리서치 및 워크플로우 툴, 전문가 분석 제공
	FindLaw	고객개발 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웹사이트 개발, 변호사 디렉토리 제공
	Hubbard One	법률 펴에 온라인 마케팅 및 비즈니스 개발 솔루션 제공
	RIA	세무 전문가의 분석 및 해석, 세금 환급 및 관리 소프트웨어
	Thomson Elite	법률사무소에 금융 및 실무 관리 솔루션 제공
	Westlaw	온라인 법률 리서치 서비스로서, 법령, 판례 자료, 공공 기록 등을 제공
Wolters Kluwer	CCH Legal Professional Group (LPG)	법률 전문가 등에게 리서치 툴 제공
	Kluwer Law International	특허, 저작권법, 합병 및 인수, 그리고 노동법 등을 포함한 국제 법률 정보 서비스
	Loislaw	미연방 및 모든 주의 판례, 법령, 규제, 개인과 기업 공공 기록 등에 관한 리서치 서비스 제공
	Wolters Kluwer Corporate Legal Services	기업 거래, 관할권, 소송 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툴 제공
Bureau of National Affairs	BNA Online	헬스케어, 비즈니스, 노무, 법, 경제, 세무, 환경, 안전 등에 관한 뉴스와 정보 제공 서비스
Incisive Media	Law.com	온라인 출판물을 법률 전문가들에게 제공
IndexMaster	IndexMaster	8,000여 법률 관련 출판물 데이터베이스 검색 서비스
State Net	State Net	주 정부 및 의회의 법안 및 규제 정보 전산 추적 시스템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2008~2009년 4대 기업 실적을 살펴보면, Thomson Reuters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 서비스 부문의 수익이 줄어들었다. Wolters Kluwer의 경우, 세무 정보 서비스 매출이 6.2% 증가하였으나 일반 법률 정보 서비스 부문에서 크게 하락하였고, LexisNexis는 10% 이상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 주요 법률 정보 서비스 기업 수익 현황 (2008~2009)

(단위: 천 달러)

순위	회사명	2008(E)			2009(E)			성장률		
		일반법률	세무	합계	일반법률	세무	합계	일반법률	세무	합계
1	Thomson Reuters	2,533,050	787,100	4,565,000	2,590,650	881,000	4,592,000	2.3%	11.9%	0.6%
2	LexisNexis	1,951,340		2,534,210	1,749,380		2,242,900	-10.3%		-11.5%
3	Wolters Kluwer	1,141,590	688,050	3,702,930	1,085,210	730,640	3,497,030	-4.9%	6.2%	-5.6%
4	BNA	174,350	89,910	352,211	167,830	86,020	338,470	-3.7%	-4.3%	-3.9%
합계		5,800,330	1,565,060	11,154,351	5,593,070	1,697,660	10,670,400	-3.6%	8.5%	-4.3%

주: 합계에는 공공기록 정보 서비스와 기타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로부터 재구성

주요 4개 기업 구독자수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모두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독자 수 1위인 LexisNexis의 2009년 구독자수는 2008년 405만 100명에서 9.9% 증가한 445만 1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상위 4개 기업의 법률, 세무, 공공기록 정보 서비스 온라인 구독자 수는 922백만 1,625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II-17> 주요 법률, 세무, 공공기록 정보 서비스 기업 온라인 구독자 수 증감 추이

순위	회사명	2008 구독자수(E)	2009 구독자수(E)	증감률
1	LexisNexis	4,050,100	4,450,100	9.9%
2	Thomson	4,150,000	4,375,500	5.4%
3	ChoicePoint	267,000	274,675	2.9%
4	Wolters Kluwer	117,000	121,350	3.7%
	합계	8,584,100	9,221,625	7.4%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정보콘텐츠의 다른 분야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법률, 세무, 공공기록 정보 서비스 분야이지만, 경기 침체는 가격 책정 관행, 보상, 패키징, 비용 구조 등 기존 서비스의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용료 절감을 위하여 해외 외주, 법률회사와의 고정 수수료 동의서 체결<sup>5)</sup>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기존에 지배적이었던 대형 그룹들 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

#### 4) 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정보 서비스 부문의 대표적인 업체는 아래와 같다. 이 시장의 경쟁자 집단에는 의료 정보 제공뿐 아니라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영역 내에 다른 정보 서비스 부문을 함께 갖고 있는 Thomson Reuters, Wolters Kluwer, Reed Elsevier<sup>5)</sup> 뿐 아니라, 헬스케어 부문에 특화되어 있는 WebMD와 Epocrates 등이 주요 플레이어이다.

<표 II-18> 주요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모회사	서비스	사업 내용
McGraw-Hill	AccessMedicine	학생, 연구자, 의사들에게 임상 질문에 대한 즉각적 답변 제공. 온라인 PDA, iPod, MP3 등을 통해 콘텐츠 업데이트
Wolters Kluwer	Clin-eguide and Mobile Clin-eguide	POC(Point of care) 등의 툴 제공.
Thomson Reuters	Clinical Xpert	약물, 상호작용, 질병, 대체의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Clinical Xpert Navigator	환자에 관한 데이터를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의사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Medstat Advantage Suite	고용주, 건강 보험, 관계 당국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통합 제공
	Micromedex	의약품, 질병, 독극물, 임상 지침 등의 데이터베이스
Epocrates	Epocrates Essentials and Epocrates Rx	PDA 및 아이폰을 통해 광범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Epocrates Online	의료 전문가를 위한 무료 온라인 서비스. 의약품과 질병 정보 제공
Wiley	Evidence-Based Medicine Guidelines	1차 진료를 위한 임상 지침 제공
Reed Elsevier	iCONSULT	환자 진단 및 관리 지원

5) 이로 인해 사용료 협상뿐 아니라 해당 법률회사와의 업무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세부적 협상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

	MDConsult	임상 의사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PatientKeeper	PatientKeeper	환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
Unbound Medicine	Unbound Medicine	PDA, 휴대폰, 인터넷을 위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플랫폼
UpToDate	UpToDate	인터넷 및 PDA를 통한 의료 정보 제공 (전문가와 일반인 대상)
WebMD	eMedicine.com	의료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30,000개의 멀티미디어 파일, 6,500편의 임상 논문, 700개의 환자 교육 자료 등)
	WebMD.com	건강 유지 및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인 대상 웹사이트
	WebMD Medscape	헬스케어 전문가를 위한 무료 웹사이트 (의료 뉴스, 논평, 컨퍼런스 정보 등을 포함)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2008~2009년 상위 10대 기업 실적을 살펴보면, Wolters Kluwer의 헬스케어부문을 제외하면 3% 이상의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10대 기업 평균 성장률은 4.0%로 나타났다. 특히 UpToDate의 경우 10% 이상의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점유율 1위 기업은 Elsevier Health Sciences으로 연간 매출액이 8억 1,135만 달러에 이른다.

<표 II-19> 주요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실적 현황 (2008~2009)

(단위 천 달러)

순위	회사명	2008	2009(E)	성장률
1	Elsevier Health Sciences	788,100	811,350	3.0%
2	Wolters Kluwer Health	494,846	493,405	-0.3%
3	WebMD	366,350	378,740	3.4%
4	Thomson Reuters Healthcare	366,120	394,551	7.8%
5	Springer Science+Business	197,295	208,500	5.7%
6	John Wiley & Sons	195,553	207,015	5.9%
7	Informa	147,780	155,598	5.3%
8	Epocrates	81,665	88,500	8.4%
9	UpToDate	80,000	90,000	12.5%
10	McGraw-Hill	26,410	27,300	3.4%
	합계	2,744,119	2,854,959	4.0%

자료원: Simba Information (2010)

컴스코어가 2010년 1분기 동안 의사들의 의료건강 부문 인터넷 사용을 조사한 결과 미국 의사의 81%가 전문 의료인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전체 방문 중 비중은 33%였다고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무료 의사 포털인 Medscape에 의사의 57%가 방문해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이어서 Epocrates, MDlinx, Modernmedicine, Uptodate의 순으로 방문이 많았다. 의료전문사이트의 경우 검색 보다는 바로 URL 주소를 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체 인터넷 사용 시간의 48%를 차지할 만큼 가장 오래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의사들이 자주 방문한 웹사이트는 WebMD, Everyday Health, About.com 등 일반 건강 사이트로 75%가 방문했다. 일반 건강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의사들은 검색을 통해 들어왔으며 전체 사용 시간의 2%를 들이는데 그쳤다. 컴스코어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일반 건강 사이트에서는 정보의 핵심만 찾고 곧 떠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였다. 일반 건강 사이트에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내용은 특정 약의 정보(10%)와 식사나 영양 정보(7%)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협회나 비영리 사이트(67%), 제약지

원사이트(51%), 브랜드사이트(50%)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사이트도 의사의 48%가 방문했는데 NIH 사이트에 30.5%가 방문해 가장 인기가 높았다. 시간 면에서 e-디테일링, 브랜드 등 제약 지원 사이트에서 보내는 시간은 전체의 8%였으며, 다음으로 협회 사이트에 7%를 할애했다. 전체 방문 가운데 비중으로는 제약지원 사이트에 방문율이 11%, 협회 사이트가 8%를 차지했다. 제약사 가운데선 Wyeth의 사이트에 6.3%가 방문해 가장 많았고, 제약 지원 부문에서는 DoctorDirectory가 22%를 끌어 가장 인기가 높았다.

<표 II-20> 미국 의사 방문 사이트 순위 (2010년 1분기)

범주	방문 의사 비율	사용 시간 비율	전체 방문중 점유율	방문율 1위 사이트	방문 의사 비율
의료전문	81%	48%	33%	Medscape	57.0%
일반건강	75%	2%	10%	WebMD	20.5%
협회	67%	7%	8%	AAFP	17.0%
제약지원	51%	8%	11%	DoctorDirectory	22.0%
제약사	50%	2%	3%	Wyeth (현재 Pfizer에 합병)	6.3%
정부	48%	2%	4%	NIH	30.5%
건강.웰빙	40%	2%	4%	Thatsfit	8.3%
소셜미디어	40%	6%	6%	SERMO	21.3%
보험	38%	5%	7%	Ucomparehealthcare	11.3%
의사검색	35%	1%	2%	Healthgrades	26.0%
클리닉	31%	11%	6%	Clinicaloptions	3.5%
의학저널	30%	1%	2%	NEJM	13.0%
약국서비스	22%	6%	4%	Allscripts	3.5%

자료원: 의학신문 디지털보사(www.bosa.co.kr)

최근 MM&M은 미국 의사 커뮤니티인 서모(Sermo)를 통해 진료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레퍼런스인 'Epocrates'라고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의사 73명 중 73%가 이포크라테스를 매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꼽아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WebMD의 'Medscape'앱이 37%에게 선호되었다6).

### 3. 솔루션 시장의 규모 및 전망

솔루션 시장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2010년 514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6.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닝 시장의 성장률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극히 작거나 통계치 부재로 인하여 과거 추정이 불가능하였던 시장이 다수 추가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향후 성장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11.4% 성장하여 2015년에는 약 88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모바일 시장의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0.7% 성장하여 2015년 약 92

6) Medical Marketing & Media(www.mmm-online.com). 동 조사에서 의사의 66%가 무료 앱을 선호했으며, 43%는 광고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0%는 제약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20%는 사용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들 의사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40%)이었으며 다음으로 구글 안드로이드(21%), 블랙베리(7%)의 순이었다. 6%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II-21> 솔루션 시장 권역별 규모 및 전망(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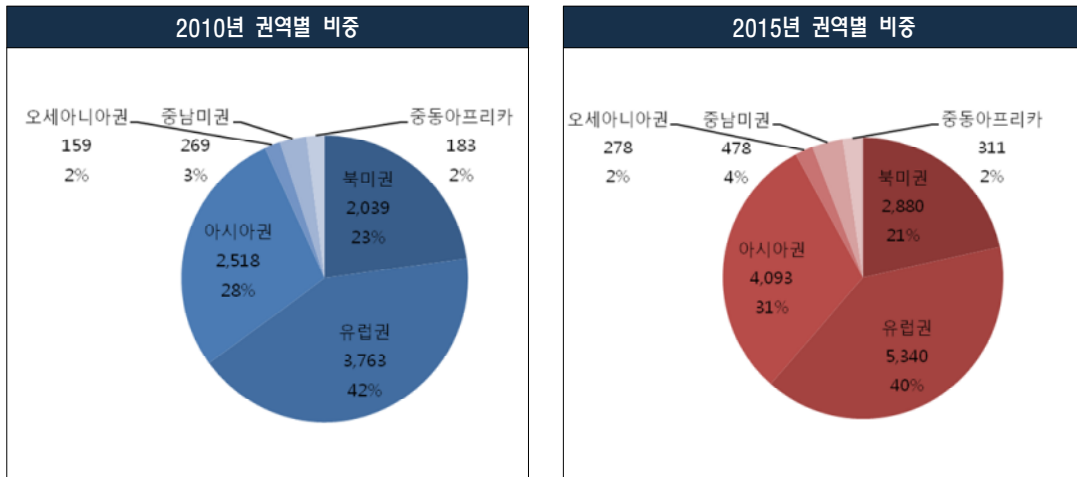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전체	3,656	4,586	5,628	6,730	7,843	8,931	9,934	10,753	11,497	12,549	13,380	8.4%
북미권	901	1,092	1,348	1,561	1,801	2,039	2,180	2,400	2,500	2,760	2,880	7.2%
유럽권	1,592	1,994	2,426	2,869	3,329	3,763	4,205	4,380	4,602	4,972	5,340	7.3%
아시아권	939	1,209	1,488	1,848	2,181	2,518	2,856	3,194	3,530	3,862	4,093	10.2%
오세아니아권	64	82	98	119	139	159	180	202	224	248	278	11.8%
중남미권	93	123	156	195	232	269	307	347	387	427	478	12.1%
중동아프리카권	67	86	112	139	161	183	206	230	255	280	311	11.2%
전년대비 성장률		25.4%	22.7%	19.6%	16.5%	13.9%	11.2%	8.2%	6.9%	9.1%	6.6%	-13.7%
모바일시장	183	229	281	337	392	625	815	958	976	1,196	1,502	19.2%

자료원: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2010년 현재 이러닝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권으로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약 40%로 시장 점유율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북미의 시장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아시아권(28%→31%), 중남미(3%→4%) 등의 시장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9] 2010년과 2015년 권역별 솔루션 시장 비중



자료원: Simba Informations, 2010; PWC, 2010; eMarketer, 2009; Informa, 2009; GIA, 2010

#### 4. 모바일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규모 및 전망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정보콘텐츠 분야를 온라인, 모바일 시장을 포함하는 디지털 시장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중 모바일 시장 규모 현황과 전망에 관해 따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약 65억 5,300만 달러로, 향후 5년간 약 18.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5년에 약 15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이러닝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2015년 이러닝 시장 규모는 약 92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모바일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은 전년 대비 약 49.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22> 디지털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권역별 규모 및 전망(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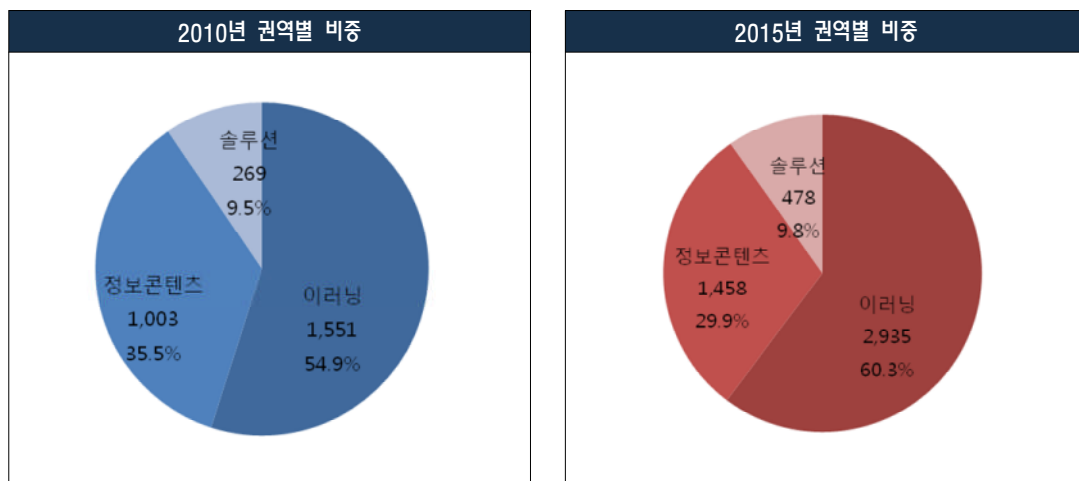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이러닝	802	1,151	1,475	1,835	2,204	3,601	4,787	5,705	5,884	7,283	9,227	20.7%
정보콘텐츠	1,821	1,955	2,067	2,014	1,777	2,327	2,979	3,267	3,136	3,737	4,582	14.5%
솔루션	183	229	281	337	392	625	815	958	976	1,196	1,502	19.2%
합계	2,806	3,336	3,823	4,186	4,373	6,553	8,581	9,930	9,996	12,216	15,311	18.5%
전년대비 성장률		18.9%	14.6%	9.5%	4.5%	49.9%	30.9%	15.7%	0.7%	22.2%	25.3%	

자료원: PWC (2010); GIA (2010); Simba Information (2010)

권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54.9%를 차지하면서 디지털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이러닝 시장 비중은 2015년 60.3%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솔루션 시장도 9.5%에서 9.8%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정보콘텐츠 시장은 35.5%에서 29.9%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10] 2010년과 2015년 디지털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부문별 비중



자료원: PWC (2010); GIA (2010); Simba Information (2010)